◇'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준비위원회'가 7월 25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선언문을 발표하는 모습.

"비리 언론 자정노력 하라"

불교등 4대 교단 '1천인 선언' 발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교단 종교인 1천여명은 7월 25일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준비위원회'는 이날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비리, 족벌언론의 대국민 사과와 강력한 언론개혁을 촉구했다.

불교의 청화(실천승가회 의장) 진관(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스님, 천주교의 김병상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개신교의 문대골 목사(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원불교의 이정택 교무(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대표) 등 30여명의 대표자가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교인들은 "비리 족벌 언론사와 언론사주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족벌이 언론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면서 불법과 탈세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경영권과 편집권을 전횡해 온 사실을 은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언론사들은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 운운하기 전에 먼저 깊이 반성하고 국민과 역사의 가르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케케묵은 '색깔론'이나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 역시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반역사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 족벌 언론사와 사주가 반성과 자정의 노력으로 거듭나지 않을 경우 각종 법회, 미사, 기도회를 통해 비리 언론사의 문제점을 신도들에게 알려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 거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이날 선언문에는 천주교 540명, 불교 308명, 개신교 358명, 원불교 92명 등 1298명이 동참했다. 김재경 기자

1단체 1지도법사 '발등의 불'

임업불교연구원은 7개월 남짓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 사찰의 스님들에게 지도법사를 청했으나 "사찰 신도 관리도 벅차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서울열차승무사무소 불자회는 '법문비'가 부담스러워 지도법사를 초빙하지 못하고 있다. 법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10여 명 안팎이기 때문이다. 상용통신망에서 활동하는 모 동호회 서울경기지역 모임은 오후 7시에 시작되는 정기법회 장소 마련에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밤늦은 시각에 법회를 보는 것을 마뜩찮아 하는 사찰들이 많기 때문이다.

교리공부 · 신행상담 어려움 커
직장직능법사단 곧 발족 "기대"

지난 94년 이후 줄곧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직장직능 신행단체. 그러나 수적 증가와 반비례로 지도법사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도법사 부재'는 단일 사업체나 소규모 신행단체일수록 심해 어렵게 창립된 이들 단체가 친목 모임 정도로 유지되다가 유야무야 사라질 우려도 안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99년 전국의 직장직능 신행단체 12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행활동 및 현황에 관한 조사'에서 '지도법사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직장직능 신행단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 보림사 주지 정악 스님이 10여 년 째 지도법사로 있는 경산 조폐창 금강회의 경우, 월 2회 정기법회와 교리공부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스님이 140여 명의 회원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 회원들의 신행이나 인생 상담에 곧잘 응해주고 있다.

금강회 사무국장 서응교 씨는 "스님의 포교 원력이나 수행자로서의 인품에 회원들이 감화를 받아 신행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씨는 "평균 40여 명의 회원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회사일로 5~6명의 회원만이 모임에 참석해도 법사스님의 지도로 법회를 봉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법회를 거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도법사의 부재는 직장직능 신행활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교리 공부나 법회 봉행 등의 원활한 진행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더욱이 임원들을 제외한 직장직능 불자 대부분 '산사의 정취가 좋아서', '불교를 바로 알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가입한 초심자들이어서, 이들의 불교 공부나 신행활동을 자세히 점검해 주는 지도법사의 부재는 초발심을 꺾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방안이 쉽게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생적으로 결성된 신행단체라는 불자회의 특성 탓으로, 이들 단체를 지원할 곳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7월 19일 교계 첫 직장직능 의식집전 교육을 실시한 조계종 포교원의 경우, 현황 파악을 한 후 하반기에 '직장직능법사단'(가칭) 조직 등 지원사업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나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을 뿐이다.

최근 한빛은행 불자회 지도법사로 추대된 법현 스님(종단협의회 사무국장)은 "직장직능 단체는 회원들의 소속 사찰이나 종단이 달라 그 정체성이 회미하다"며 "신행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1단체 1지도법사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조계종 포교원 뿐만 아니라 각 종단과 종단협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서초경찰서 경승법당 개원 1주년 기념법회

서초경찰서 경승법당 개원 1주년 기념법회가 7월 23일 오후 2시 서초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봉행됐다(사진). 서초구 사암연합회가 후원하고 서초경찰서 경승단이 주최한 이번 기념법회는 200여 사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서초사암연합회장 춘광스님(관문사 주지)의 법어에 이어 서초경찰서 경승실장 월도 스님의 기념사, 서초경찰서 조삼랑 서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조삼랑 서장은 감사패, 서초경찰불교회 최용일 회장과 이영무 총무는 공로패를 각각 받았다. 법당은, 지난해 7월 아미타부처님이 봉안되고, 11월 경찰불교회가 발족되면서 불자 경찰들의 수행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오종욱 기자

불교교사대학 첫 운영보고회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은 7월 20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1학기 운영보고회를 가졌다(사진). 정여 스님, 양정청소년회관 관장 범산 스님을 비롯한 어린이법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1학기 학사일정 보고와 재무보고를 갖고 2학기 계획을 밝혔다.

어린이법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교계 최초로 창립된 대한불교교사대학 48명의 수강생들은 1학기동안 불교학과, 교육학,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마치고 방학을 이용 여름불교학교 실습 경험을 갖게 된다. 또한 2학기에는 참관학습, 불교문화재 탐방, 현장수업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고루 갖춘 어린이 법회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다.

정여 스님은 "어린이 포교와 교육은 어떤 분야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며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수료한 이들이 어린이법회 현장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게시판

강좌

▲금정불교대학 교리 · 경전반=금정불교대학은 하반기 교리 및 경전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교리 과정은 월, 화, 수요일 주 · 야간으로 진행되며, 〈금강경〉, 〈육조단경〉, 〈선문촬요〉 등을 강독한 경전반은 목, 수요일에 마련된다. 접수는 8월 11일까지. (051)866-7277

▲정토불교대 하반기 강좌=정토불교대학은 2001년도 하반기 2, 4학년 강좌를 마련했다. 불교입문과정, 수행론, 불교와 사회 등 11개 분야 15개 과목이 마련된 이번 강좌는 9~12월 3개월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마산에서 진행된다. (02)587-8993

▲제주불교문화대 야간반 신설=제주불교문화대학은 제4기 야간반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불교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 학력 소지자와 관음불교학교 수료자, 기타 불교기초교리 과정 이수자로, 신청은 31일까지. 교육기간은 1년. 개강은 9월 5일. (064)702-2828

▲능인불교대학 제32기 강좌=능인불교대학은 제32기 강좌를 연다. 9~12월 3개월간 진행하는 이번 강좌에는 불교기초교리, 근본불교, 불교의식, 비교종교학 등의 과목이 마련됐다. 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낮반과 수,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반으로 진행된다. (02)577-5800

모집

▲한문예절교실 수강생=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한문예절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은평구 거주 4, 5, 6학년 초등학생이며, 교육은 월~토요일 오전 8~10시. (02)385-1351

▲장애아동 목욕 도우미=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아동 목욕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는 주 1~2회 2시간씩 실시된다. (02)852-0525

▲밑반찬 조리 봉사자=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독거노인 밑반찬 조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는 주 1회 오후 2~4시 실시. (031)455-0551

▲태극권 교육생=조계종 원우회는 태극권을 함께 배울 불자들을 모집한다. 태극권 교육은 매월 첫째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조계종 포교원 4층. (011)9899-8934

▲독거노인 생신잔치 후원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 생신잔치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은 매월 1회 (02)2203-3677

이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전=(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종로구 명륜동 4가 206-6호에 사옥을 마련, 1일 이전했다. (02)765-9602~3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우리 모임에선

대우종기 금강경 강좌

대우종합기계 한국항공우주산업 불교법우회는 7월 24일 오후 6시 30분 성주사 설법전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15명이 동참한 이번 법회는 독경, 108배, 참선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법우회는 8월 28일 성주사 주지 원광 스님 초청 〈금강경〉 특강을 실시한다.

반야회 법왕정사 순례

한전 본사 반야회는 7월 21~22일 경기도 양평 법왕정사에서 사찰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순례법회에 동참한 10여 명의 회원들은 법왕정사의 저녁, 아침 예불은 물론 주지 청견 스님의 지도로 '절하는 법'도 배웠다. 이번 법회는 5월 동원정사, 6월 청계사에 이어 세 번째.

교사불자련 무애원 봉사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경기법우회는 7월 22일 10여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무애원을 방문, 설거지 봉사를 실시했다. 무애원은 해병 2사단 군법당으로, 매주 150여 명의 장병들이 무애원 주지 혜정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점심공양을 해오고 있다.

도시철도 법우회 정기법회

도시철도 법우회는 7월 26일 오후 7시 서울 답십리 관음정사에서 7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동참한 20여 회원들은 천수경 독송과 정근 그리고 관음정사 주지 경덕 스님의 법문을 듣고, 법우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해병불자회 독경정근

해병대 불자회는 7월 29일 오후 3시 강남 봉은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참석한 30여 회원 및 그 가족들은 독경과 정근을 통해 신심을 다졌다. 지난 4월 창립된 해병대 불자회는 매월 1회 정기법회와 성지순례를 실시하고 있다.

불교법사회 수련회

대한불교법사회는 7월 27~29일 경북 봉화 관음사에서 '스스로 참회하고 남에게 도움주자'를 주제로 하계수련회를 갖았다. 이번 수련회는 동국대 목정배 교수의 '세제수행법' 등의 강연과 법사활동사례발표, 우란분절의 의미와 기도실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5과목 강의),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일운스님(무형문화재 범패전수자)
■ 초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불교학 통신 00명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현오스님과 함께 하는
전생최면 지도자 연수프로그램

현오스님의 지도 아래 개최되는 전생최면 지도자과정 연수프로그램을 알립니다.
금번의 프로그램에서는 전생최면 시술법의 개별전수 및 다양한 명상법의 실수와 교리 강좌를 통해
① 현실 삶의 원인인 과거생을 돌이켜보고,
② 미래에 대한 통찰을 통해 창조적인 삶을 준비하며,
③ 이를 바탕으로 불자대중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 상 : 스님 · 불교지도자(교리체계를 갖춘 분)
▮기 간 : 2001년 9월 11일 – 9월 16일(5박 6일)
▮참 가 비 : 삼백만원(大智 전생연구회 발전기금)
▮장소 · 참가자 선정 : 신청접수 후 개별통보
▮참가 신청 : 전화상담 후 간단한 경력사항 제출
▮문 의 : 02-929-0929, 033-374-5346, 팩스 : 02-571-5413
▮참가비납부 : 우체국 200170-02-082157, 유동근
▮접수 마감 : 2001년 8월 31일
▮참가자통보 : 2001년 9월 3일

『불교에서 본 마음과 전생최면』의 저자 현오스님이 이끄는 大智 전생연구회는 불교의 교리에 입각한 전생최면의 해석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실상을 바로 알아 이익대중의 길을 모색하는 수행연구단체입니다.

주최 : 大智전생연구회

위 과정을 마친 이후 빠른 시일내에 일반인을 위한 2박 3일 과정의 〈전생 체험 명상 캠프〉를 개설할 예정입니다.